

배포 일시	2023. 2. 9.(목)		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	책임자	과 장 정수호 (044-201-3988)
		담당자	사무관 서형우 (044-201-4633)
			주무관 백동현 (044-201-3984)
보도일시	2023년 2월 9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9.(목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

부천대장-홍대 민자철도사업 첫 발 떴다

- 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지정... 2월말부터 협상 착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2월 9일(목) 부천대장-홍대 민자철도(부천 대장신도시 - 홍대입구역, 이하 ‘대장홍대선’)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, 현대건설 컨소시엄((가칭)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)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현대건설은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인 GTX-C에 이어 대장홍대선까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, 두 건의 민자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.
- 국토교통부는 2월 말부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, '25년에 착공하여 '31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 - 협상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, 기술적·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적인 사업노선, 정거장 위치, 요금 수준 등을 확정한다.
 - 이를 위해, 한국교통연구원, 국가철도공단, 회계·법무법인 등 민자철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, 기술, 재무, 운영, 법률 등 전 부문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“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철도서비스가 비교적 부족했던 지역으로, 대장홍대선이 해당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 면서, “협상과정에서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” 이라고 밝혔다.